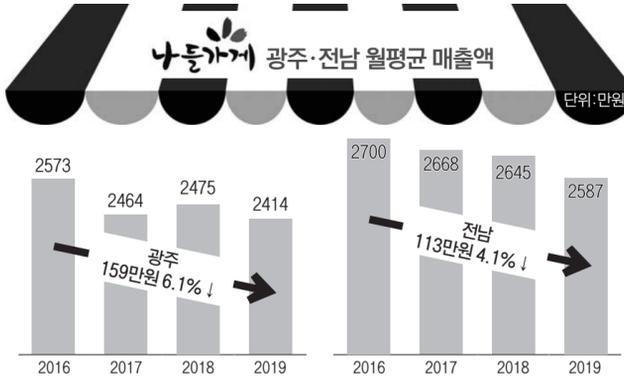


발길 뜬 '나들가게' 광주 폐업률 전국 최고

월 평균 매출 3년새 159만원 하락...전남도 113만원 감소
광주·전남 1142곳 중 403곳 폐업...폐업·취소를 52%·27%
편의점 간 거리 광주 157.3m 평균 70% 수준...전남은 488.3m

동네슈퍼의 대표적 브랜드인 '나들가게' 지역 매출은 해마다 줄고 광주지역 폐업률은 50%를 넘겨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 급기야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나들가게 월평균 매출액은 2573만원(2016년)→2464만원(2017년)→2475만원(2018년)→2414만원(지난해) 등 최근 3년 동안 159만원(-6.1%) 줄었다. 전남도 2700만원(2016년)→2668만원(2017년)→2645만원(2018년)→2587만원(지난해) 등 3년 새 113만원(-4.1%) 감소했다.



(2518만원), 광주(2414만원), 경남(2308만원), 경북(2256만원), 대구(2252만원), 충남(2244만원), 울산(2199만원), 전북(2191만원), 강원(2176만원), 세종(2052만원), 제주(1888만원), 부산(174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에 담겼다. 전체 편의점을 기준으로 인접점포와의 거리(직선)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거리는 224.9m인 반면 광주지역은 이의 70% 수준인 157.3m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윤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나들가게 지역 월평균 매출액은 광주 2414만원·전남 25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매출액이 각각 61만원(2.5%), 58만원(2.2%) 감소한 금액이다.

지역에서는 10년 전인 지난 2010년부터 광주 537개·전남 605개 등 1142개 나들가게가 문을 열었지만 403곳이 폐업하고 35곳이 나들가게 사업을 포기하는 등 폐업률이 각각 52%, 27%에 달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신도시인 세종(67%)을 제외하고 폐업률이 가장 높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을 1위라는 오명을 안았다.

또 생계형 창업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편의점은 광주지역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편의점들은 평균적인 편의점 분포 비율을 크게 넘겼다는 뜻이다. 광주지역은 서울(104.6m), 부산(148m), 대전(150m)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분포도가 높았다. 반면 전남 편의점간 거리는 488.3m로 가장 멀었다.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나들가게는 실시간 영업정보 분석과 온라인 수발주가 가능한 100만원 상당 POS(전자식금전등록기) 시스템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개선,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역 나들가게는 매출액이 해마다 줄면

이 같은 내용은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2019 프랜차이즈 실태조사(편의점)' 결과에 담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5.90 (+7.90)
- ↑ 금리(국고채 3년) 0.905 (+0.024)
- ↑ 코스닥 862.58 (+4.19)
- ↓ 환율(USD) 1161.00 (-2.40)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10월 분양



84~112㎡ 총 632가구 자연친화적·교통편리 장점

대림산업은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일원에 들어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의 주택홍보관을 이달 중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 233가구 ▲84B㎡ 35가구 ▲84C㎡ 123가구 ▲112A㎡ 168가구 ▲112B㎡ 67가구며, ▲110PA㎡ 2가구 ▲110PB㎡ 3가구로, 110PC㎡ 1가구는 단지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펜트하우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순천 최초로 'C2하우스' 설계방식을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C2하우스는 대림산업만의 특화 설계방식으로 내력 벽체를 최소화해 세대구성 및 개인의 성향,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수납이 극대화된 대형캐비닛 제고 및 합리적인 주거 동선을 제시하여 입주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스마트 클린&

케어솔루션'과 층간 소음 감소 및 난방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60mm 바닥차음재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순천 최초로 아파트 안에 사우나가 들어서고 외부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제공된다. 실내놀이터,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스터디룸 등 다채로운 시설도 적용될 계획이다.

또 병화산 자락과 동천 수변공원이 인근에 있어 자연친화적 생활이 가능하고, 최근 지역 내 다수의 신규공급이 이뤄진 용당동, 서면, 가곡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여건 개선과 미래가치도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지는 원도심과 신도시 중앙부에 있어 순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도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다. 순천IC와 인접해 광양, 여수 등 타지역 접근성도 우수하고 차량으로 10분 거리 순천역과 순천터미널도 자리하고 있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주택전시관은 순천시 가곡동 359-3번지 일대에 10월 중 열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두 달 연속 물가 상승률 1위

광주 0.6%·전남 1.4% 상승

전남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광주·전남 모두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역 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0.6%, 전남 1.4% 상승했다. 전국 평균 물가는 1% 올랐다. 전남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1.1%)에 이어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9월 물가 상승률이 1% 넘긴 곳은 전남과 인천·경기·충남(각 1.2%), 경남(1.1%) 등 5곳이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역 물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3.7%, 14.2% 오르며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백희준 기자 bhj@

국내 복귀 리쇼어링 기업

광주 2곳·전남은 전무

전국 77곳 중 44곳 가동

지난 7년 동안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복귀) 기업이 전남에는 한 곳도 없었고, 광주에는 단 2곳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77개로 조사됐다.

전남에는 한 곳도 없었으며, 광주로 돌아온 2개 기업 가운데 실제 가동 중인 사업장은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리쇼어링 기업 77곳 가운데 가동 중인 곳은 44곳으로, 가동률은 57.1%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조세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가운데 5년 동안(2014~2018년) 이익을 내 세금(법인세·소득세)을 감면받은 기업은 총 15개에 불과했다. 감면액도 5년 간 총 15억원으로, 한 해 2억~6억원에 그쳤다. 국내 복귀 기업들의 고용창출 성과는 계획했던 2807명의 14% 수준이었다.



환절기 수분공급에 딱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2층 화장품 매장에서 친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큰 가을철 수분 충전을 돕는 기초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